

전남대·목포대 등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된다

1인당 평균 14만9500원…국공립대 총장협 17일 확정

국립대의 5배인 사립대 동참 ‘관심’…DGIST는 제외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4년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남대를 비롯한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전남대·경북대·부산대·충북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순천대·목포대·군산대·금오공대·부경대를 비롯한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학교 10

곳 등 고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공립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개 중소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미 이달 초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전형료도 10.3% 인하하기로 했다.

순천대도 조만간 입학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순천대는 이와 함께 전형료를 11.6% 내렸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7일)회의에서 발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4년제 국립대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대학은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입학금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2015회계연도의 국립대 세입 자료를 살펴보면 입학금 수입(111억원)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지난달 전북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지 불과 2주일여 만에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없애게 된 것도 이

처럼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계에서는 이제 사립대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입학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을 체감하려면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꾸린 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사귀환 신고합니다”

14일 ‘피스로드(Peace Road)2017 광주·전남 통일대장정’ 참가자들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도착해 해단식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의 의미로 개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초·중·고교생 봉사활동 시간 평균 이하

교육 외 시간 진로 중심 할애…광주 1시간·전남 3시간 부족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교생 한 명당 봉사활동 시간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전국에서 중하위권, 전남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충북교육청이 교육정보통계자료를 분석한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17.29시간(전체 학생수 20만3479명·봉사활동 이수시간 351만7398시간)으로 1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학생 한 명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5.34시간(전체 학생수 21만5676명·

봉사활동 이수시간 330만9533시간)으로 15위였다. 서울과 세종은 각각 15.20시간·13.97시간 등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전국 학생 한 명당 평균 봉사활동 이수시간은 18.66시간이다.

평균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22.43시간을 기록한 충북이었다. 이어 울산(22.43시간)·대구(22.01시간)·경북(21.72시간)·인천(21.49시간)·제주(20.27시간)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유형은 농촌일손돕기·캠페인활동·환경시설정화활동·자선구호·홀몸노인 돌보기·위문활동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의 봉사활동시간이 다른 광역시·도 학생들에 비해 적은 이유는 성적이 좋은 학생 위주의 봉사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학생 봉사활동 최소이수시간이 다른데, 광주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는 10시간, 그 외엔 7시간을 최소 이수시간으로 정해놨다”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시간 외에 시간을 진로활동 중심으로 창의적인 체험활동에 할애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혼 후 국민연금 ‘따로’

분할 수급자 2만명 돌파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2만 100명으로 2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5월 말 현재 숫자가 2만1901명까지 올라갔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지난해 1만9830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5월 기준 성별로 보면, 여자 1만9409명(88.6%), 남자 2492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2
해질 19:21

달출 ---:
달짐 13:08

비 내리는 광복절

오전부터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3/30	보성	비	22/28
목포	비	24/30	순천	비	24/29
여수	비	24/27	영광	비	24/30
나주	비	22/30	진도	비	23/30
완도	비	24/29	전주	비	23/29
구례	비	22/29	군산	비	23/28
강진	비	23/29	남원	비	22/29
해남	비	23/29	흑산도	비	24/29
장성	비	22/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부 먼바다	남~남서 1.0~2.5	남~남서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먼바다(서)	남서~서 1.5~2.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남서~서 1.5~2.5	남서~서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4/30	24/32	24/31	24/32	24/30	24/30	24/32

비 내일까지 최고 60mm 더 내려

15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특히 전남부터 일부지역에 2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길 운항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신안 가거도가 255mm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완도읍 174mm ▲해남 북일 159mm ▲고흥 나로도 130.5mm ▲진도 의신면 120mm ▲장흥 유치면 113mm 등이다.

장흥·진도·신안·완도·해남·강진지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번 비로 여객선 55개 항로 92척 중 8개 항로 10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다도해·월출산 국립공원 탐방로 16곳의 출입도 통제됐다. 호우·강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1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에 따라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16일 오후부터 점차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비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영기자 young@

경찰청 장기 실종자 수사 전담팀 구성

경찰청이 장기실종자 수사의 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 등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년 이상 장기실종자건을 담당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실종전담팀을 꾸리는 등 종합수사 계획을 오는 11월21일까지 100일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담팀은 지방청별 3~5명으로 구성된다. 이 팀은 관할구역 내 장기실종자

건을 수사하고, 다른 지방청과 공조도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많은 발생사건에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일선 경찰서보다는 업무 집중도가 높은 지방청 단위에 장기실종자건을 다루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실종자는 18세 미만 청소년 278명, 지적장애인 110명으로 모두 388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초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